

박규영 “스위트홈, 인생 터닝 포인트…악역 해보고 싶어”

넷플릭스 괴수 호러 시리즈 ‘스위트홈’ 주연

베이스트 윤지수로 걸크러쉬 매력 뽐내

“내 색깔 입히는 개성 있는 연기자 되고파”

투톤핑크머리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베이스트. 배우 박규영이 넷플릭스(Netflix)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을 통해 성공적인 이미지 변신을 일궜다.

지난해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정신병원 간호사 남주리 역을 맡아 청순한 면모를 드러낸 그는 K-크리처극과 만나며 강렬한 걸크러쉬 매력으로 존재감을 각인했다.

4일 화상으로 만난 박규영은 스위트홈과의 첫 만남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설렘과 재미있었다”고 기억했다.

인간들이 저마다의 욕망으로 인해 괴물로 변해간다는 독특한 세계관 속에서 박규영은 괴물과 가까이 맞서는 강단 있는 베이스트 윤지수를 연기했다.

박규영은 “처음 봤을 때 지수는 강하고 걸크러쉬 매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화법이나 목소리를 통해 그런 매력을 주고 싶었고 외적으로도 개성이 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탈색, 화장, 피어싱 등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누구보다 여리고 아픈 감정이 있는 인물이다. 개성과 감정에 신경 쓰면서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윤지수를 표현하기 위해 기타 연주와 액션 연기에도 공을 들였다.

박규영은 “베이스라는 악기를 다뤄본 적이 없다. 지수가 오랜 시간을 다룬 악기라 익숙하게 보이고 싶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레슨을

받았다”며 “야구도 방망이를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데 쇠방망이가 정말 무거웠다. 야구방망이가 주 무기기 때문에 스크린 야구장에서도 연습하고 액션 스푼에서도 지도를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

베이스를 연주하는 첫 등장에 대해서는 “지수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첫 등장이라 신경 썼다. 단순히 시늉만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그 장면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액션 연기 또한 첫 도전이었다.

괴물과의 전투 장면과 관련해서는 “상상에 기반을 두어서 연기하는 거라 감독님 스탭들, 선배님들과 호흡이 중요했다”면서도 “크로마에서뿐 아니라 괴물 분장을 한 배우들과 호흡해서 조금은 수월했다. 액션 연기가 처음엔 생소했지만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만족해했다.

인상 깊은 괴물로는 ‘연근괴물’을 꼽았다. “웹툰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연근이가 인상깊었어요. 연근이는 김철진 안무가님이 연기를 해주셨는데 처음 촬영한 괴물이기도 해요. 실제로도 설친 선배께서 연기하는 모습을 봐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사람 몸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고 목소리가 나오지하면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케미 요정? 김남희·고민시에게 감사”

괴수 호러 장르지만 박규영은 독실한 국어 교사 정재현(김남희 분)과 애뜻한 로맨스까지 그려내며 ‘케미 요정’으로도 활약했다.

박규영은 “제가 잘했다기보다 좋은 동료들 만난 복이라고 생각한다. 남희 선배님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다”며 “모든 상황, 감정, 공간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아마도 서로에게 배우고 시너지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케미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극 중 재현과의 감정선에 대해서는 “러브라인 이라기보다는 고티된 상황에서 오는 전우애와 이성으로서 호감 사이인 어디쯤 있는 감정이 아닐까”라면서 “재현의 마지막 고백에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거 같다. 그 이후 감정적으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어 “재현이가 고백하는 장면에서 ‘그것도 신의 뜻이에요’라고 묻자 ‘아니에요. 제 뜻입니다’라고 답한다. 그 대사를 되뇌면서 감정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반항기 넘치는 고교생 이은유(고민시)와 그려낸 댄스와 관련해서는 “민시가 다가와 주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 생각이 든다”며 “지수와 은유는 앙숙이지만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한다.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케미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수 외에 하고 싶은 캐릭터는 이도현이 연기한 은혁이다. 박규영은 “도현이가 연기를 잘 해서 그런지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더라. 냉철한 표정을 가지고 감정이 없어 보이지만 도현이가 미세한 근육으로 표현을 다 해냈다. 그런 인물을 맡으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넷플릭스 작품은 세계에 공개…신선하고 엄



청난 기회

‘스위트홈’은 지난해 12월 18일 190여개국에 동시 공개돼 한국은 물론 11개국에서 일일 인기순위 1위, 미국순 3위까지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다.

박규영은 “넷플릭스 킥스캠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다음 순위에 스위트홈이 있더라. 아직도 어안이 병병하다. 한국 작품과 내 연기를 세계에 알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넷플릭스 작품은 전 세계에서 본다는 것이 큰 이점인 것 같다. 내 연기를 다른 나라에서 본다는 것이 신선하고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이었던 ‘스위트홈’이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스위트홈을 찍고 최근에 악역을 너무

나 해보고 싶다. 외적으로도 살을 많이 빼서 날카로우 보이는 역할에 도전하고 싶다”며 “착하고 순해 보이는 캐릭터들을 꽤 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16년 웹드라마로 데뷔한 박규영은 어느덧 6년 차 배우가 됐다. 평소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는다는 그는 “주어진 것, 앞으로 할 것에 집중하니 시간이 흘렀다. ‘스위트홈’을 찍고 돌아봤는데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어서 칭찬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성 있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색깔로 표현한다면 흰색이요. 어떠한 것을 입혀도 내 색깔만으로 재탄생하는 캐릭터나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목표를 정하지는 않아요. 단지 매일 매순간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보영·김서형, tvN 신작 ‘마인’ 출연 확정

배우 이보영과 김서형이 tvN 새 드라마 ‘마인’에 출연한다.

‘마인’은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다. 올해 상반기 첫 방송될 예정이다.

‘마인’ 제작진은 “‘마인’은 매력적이면서도 기존의 틀을 깨는 신선한 드라마가 될 것”이라며 “이 새로운 도전을 이보영과 김서형 두 배우와 함께하게 되어서 든든하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이보영은 극중 ‘서희수’ 역을 맡았다. 서희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전직 톱 배우이자 효원 그룹의 둘째 며느리다. 재벌가라는 새롭고도 은밀한 세상에 발을 들여 갖은 노력을 하면

서도 매사 당당한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와 선택을 지키는 인물이다.

김서형이 맡은 ‘정서현’ 역은 효원그룹 첫째 며느리다. 뺏겨진 성골 귀족인 여인. 전통과 막강한 재력을 가진 재벌가 출신으로 타고난 귀티와 품위 그리고 지성까지 겸비한 인물이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가운 표정을 유지할 만큼 극도로 발달된 이성을 가졌다.

‘폼위있는 그녀’ ‘힐센여자 도봉순’ 등 신선한 소재와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로 시청자들을 휘어잡는 백미경 작가와 ‘좋아하면 울리는’ ‘쌈, 마이웨이’ 등에서 문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 받는 이나정 PD가 이번 드라마에 의기투합했다.

송중기·김태리 ‘승리호’, 내달 넷플릭스 공개

송중기·김태리 주연 ‘승리호’가 2월5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6일 ‘승리호’의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승리호’는 2002년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 최초 우주 SF영화다.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공형 로봇을 발

견한 후 위험한 거라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다.

240억원대 제작비가 든 대작으로 ‘극대소년’의 조성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송중기, 김태리, 진선규, 유해진 등이 출연했다.

지난해 여름 시장과 추석 대목을 차례로 노렸다가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넷플릭스로 방향을 틀었다.

방탄소년단 후보 ‘그래미어워즈’ 연기…코로나 여파

1월 31일→3월 1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후보로 지명된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래미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됐던 ‘제63회 시상식’을 3월14일로 미뤘다.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은 로스앤젤레스(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LA에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LA 카운티 사망자는 1만여명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주 사망자의 40%다.

시상식 중계사인 미국 CBS 방송도 “LA 의료 시스템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시상식을 미루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

다.

그래미 어워즈 측은 시상식을 미룬 동시에 이번엔 소규모 야외 공연장에서 조촐하게 여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미 어워즈 측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이미 팝음악 시상식이 연기되고 비대면 등으로 치뤄졌다. BET 어워즈는 잘 만들어진 사전 녹화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고,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는 마스크를 착용한 현장공연을 선보였다. 라틴 그래미 어워즈 역시 여러 공연을 미리 녹화했다.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공연하는 가수들의 명단은 추후 발표된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후보에

‘다이너마이트’로 지명됐다.

한국 클래식·국악 관계자가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노미네이트되거나 수상한 적은 있었으나, 한국 대중음악 가수가 후보로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이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단독 무대를 선보일 지도 관심이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상을 받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공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재는 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주축 측에 전달했다.

한편,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미국 팝 디바 비욘세가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최다 부문 후보’자가 됐다.

후보 선정에는 비욘세를 비롯 여풍(女風)이 거셴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두아 리파가 각각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비욘세의 뒤를 이었다.

블랙핑크 ‘HYLT’ 안무영상, 5억뷰 돌파…K팝 최초

K팝 걸그룹 뮤직비디오도 최단 기록



그룹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HYLT) 안무영상이 유튜브에서 5억뷰를 돌파했다. 뮤직비디오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조회수이자 안무영상으로는 이례적 기록이다.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따르면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 안무영상은 이날 오전 7시5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5억회를 넘어섰다.

지난해 7월 6일 공개된 지 약 183일만이다.

K팝 안무영상의 5억뷰 달성은 블랙핑크가 최초다.

안무영상의 역대뷰 기록 행진에서 블랙핑크는 독보적이다. 실제 3억뷰 고지를 밟은 또 다른 안무영상 역시 블랙핑크의 히트곡 ‘뚜두뚜두’(DDU-DU DDU-DU)와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뿐이다.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 안무 영상은 15일 21시간 만에 1억뷰, 45일 4시간만에 2억뷰, 76일 20시간 만에 3억뷰, 120일 10시간 만에 4억뷰를 달성하며 기세를 올렸다.

뮤직비디오도 유튜브에서 약 32시간 만에 1억뷰, 7일 만에 2억뷰, 21일 만에 3억뷰, 43일 만에 4억뷰, 73일 만에 5억뷰, 117일 만에 6억뷰, 176일 만에 7억뷰를 돌파하며 K팝 걸그룹 뮤직비디오 최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하우 유 라이크 댓’은 파워풀한 비트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높이 비상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발매 당시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 6개 차트 올킬,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차트 2위, 미국을 포함한 아이튠즈 64개국 1위에 올랐다.

또한 영국 오지셀 싱글 톱100과 빌보드 핫 100 서 각각 20위, 33위에 이름을 올렸다.